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성과 '우수'

우수 자치단체 평가서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노력 높은 점수 받아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잘 육성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추진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운용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동네마트 입점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청년서포터즈 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

터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일 이틀간 추진하고, 지난 2015년부터 8회째를 맞는 전주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다가오는 10월 한 달간 개최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회적기업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126개와 마을기업 11개, 자활기업 17개, 협동조합 504개 등 총 658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공헌할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개편 필요”

김현덕 전주시의원, “의회 임무 효율적 수행 위해 시행돼야”

전주시의회 역량강화, 책임성 확보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과 조직권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면서 “경제와 감목이라는 의회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개편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원정책팀 확대 및 예산정책팀 신설 △의회 홍보조직의 공모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 △기록관리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의회조직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를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 개편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관광명소·특화도서관 메타버스로 구현

시, 과기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행안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선정

전주시가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주요 관광지와 꽃심도서관, 책가동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메타버스로 구현한다.

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해 총 25억3000만 원(총 사업비 47억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과기부 주관하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에 한옥마을을 주제로 전북도(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경북도(경북SW진흥본부) 등과의 초광역 컨소시엄으로 응모한 결과, 지난 6월 향후 2년간 국비 15억3000만 원(총 사업비 27억5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산업과 메타

버스를 결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주요 관광명소를 메타버스로 구현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O2O 서비스(Online to Offline: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와 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거래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관광과 쇼핑,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을 3차원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가상공간에서 여행 및 전시, 전통체험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기반으로 한 관광정보(관광지, 맛집 등) 제공 △현실과 가상공간 사용자간 쇼핑, 정보공유 등 연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서울 남산한옥마을, 경북

안동화마을 등 다른 지역 한옥마을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와 익산 도서관 여행을 주제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익산시와 함께 책 놀이터 중심의 지역특화도서관, 개방형 창의 도서관을 메타버스로 연계해 지역을 넘나드는 도서관 여행 가상세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책가동도서관, 익산 생태유원도서관과 금마한옥도서관 등 양 도시의 특화도서관을 연계해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시는 나아가 △전주독서대전 등 도서관 축제 △이용자가 직접 꾸밀 수 있는 나만의 실감서재 △직접 작품을

만들어 소개하는 메타버스 창작展(전) △작가와와의 만남 등 가상공간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서점을 가상공간에 입점시켜 '서점까지 북플레이션' 공간을 마련, 시민과 지역사회가 책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도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채널로도 활용기로 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와 대표 관광지를 융합한 메타버스 관광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관광자원으로 전주만의 특화된 디지털 문화관광 시대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봉정 전주시 도시공간혁신담당장은 “올 상반기 역점적으로 준비해 온 전주형 뉴딜사업들이 잇달아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선정된 사업들은 전주형 메타버스 마중물 사업으로 협력 지자체들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8기 공약사업 등에 맞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학대피해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맞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순)이 19일 위기사유가 발생한 전주시지역 학대피해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연계와 협력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된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

사장은 “노인학대는 예방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위기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 지원체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원 부과

전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여 건, 6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 대비 6360건(약 28억 원)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 건물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30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은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3248건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5%)에 따라 세액은 2억 원

가량 감소했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23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완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신속한 물류서비스 및 물류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청구 및 납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물류관리과를 중심으로 전산정보과와 간호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TF팀 구성해 물류자료를 데이터화하고 표준물품 분류체계를 수립했으며, 최근 물류·처방·수가 등을 상호연동하는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 진료

에 사용하고 있는 위생재료, 특수진료재료, 기타진료재료 등 5천 여 품목을 규격별로 구분해 코드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이 표준코드들은 수가코드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설했다.

또한, 진료부서에서 처방한 진료재료는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물류관리과에 청구되고, 납품업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동 전달되는 등 병원과 업체 간 물류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물류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김윤상 기자

살기 좋은 용머리 여의주마을 만들기 박차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막바지 공사 한창

전주시는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정비 △환경개선사업 △생태숲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마중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완산철봉과 다가산이 만나는 모양이 하늘에서 보았을 때 용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낡은 판자촌 주민들이 이주해 행성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주택과 주민 인구유출이 생기면서 활기를 잃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따내 올해까지 국비 45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마을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30가구를 대상으로 담장·대문·외부새시·옥상방수 등 건물 외부환경을 정비하는 노후주택 집수리와 민집 정비를 마쳤으며, 인도 정비·미끄럼 방지포장·보안등교체·CCTV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폐·공가와 잡목으로 방치돼 있던 구역을 정비한 생태숲 소공원에는



여의주마을에 들어선 옛이야기도서관 전경.

옛이야기도서관과 산책로, 단풍숲,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문화 활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시는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여가생활을 지원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공

을 들이고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와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특수가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주 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이달 28일까지 특수가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6월에 군산 아적장 화재와 톱밥생산공장 화재 등 저장장소의 잇따른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해 관계인 및 저장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

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품으로 200kg 이상 면화류, 4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패밥, 1,000kg 이상의 냄바·사류·벗짚류, 3,0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등으로 완산소방서 관내에는 9개소의 저장·취급장소가 있다.

이러한 특수가연물은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이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화재수량·화기취



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품명별로 구분해 쌓고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수가연물 화재안전관리 추진사항

으로는 △대량 특수가연물 저장 등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추진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집중홍보 및 맞춤형 안전교육(컨설팅) △특수가연물 화재 시 철저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 등이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특성상 화재 발생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와 예방이 필수”라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수가연물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